

새 아파트 분양 확 줄었다

올해 광주 960·전남 3,800세대 뿐

작년의 절반... 외환위기 이후 최저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사들의 주택공급 계획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4천71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미분양주택이 1만가구에 달하는 데다 철근 등 주요 건축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적자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년새 공급계획이 '반토막' 나는 등 업계의 주택공급 회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330개 주택건설사가 올해 광주·전남에 공급할 주택은 총 4천716가구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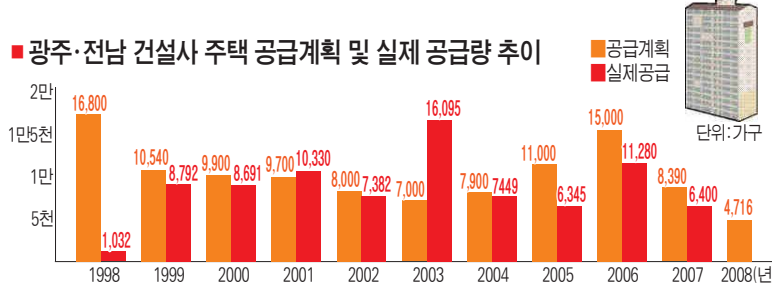
이는 수도권 대형건설사와 주택공사 공급물량을 제외한 것이긴 하지만 지난해 공급계획(8천39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광주는 올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급계획이 총 96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가 공급계획을 줄인 것은 최근 2년간 미분양주택이 대책없이 쌓인 가운데 건축자재값 급등 등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건설사의 한 해 공급계획은 주택시장의 활성화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물량 증감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물량이 큰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건설사들은 1998년 1만6천800가구를 공급 목표로 잡았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로 실제 공급은 6.1%(1천32가구)에 그쳤다. 반면 2003년의 경우 1만6천95가구가 공급



돼 당초 공급계획(7천가구)을 두 배나 웃돌 만큼 시장이 호조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해 전국 중소건설업체들의 총 주택공급계획은 21만6천629가구로, 1년새 30% 줄었다.

이는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의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물량은 총 8만6천398가구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협회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

가 검토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대부분이 수도권에 국한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시행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치영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지난해 광주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정부의 대책이 지연되면서 시장침체를 가속화시켰다"며 "각업체의 사업다각화나 공급물량 조절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지방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주, 1조원 이상 유동성 확보

경영정상화 '시동'... 대한조선 중심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대주그룹이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한조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대주그룹은 지난 25일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대한화재 매각 대금 3천526억원을 받고 보유중인 57%의 대한화재 주식을 전량 양도했다. 이로써 지난해 21일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한화재 매각을 위한 모든 거래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매각대금 유입으로 대주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도높게 진행해왔던 구조조정 계획에 추진력을 더해

게 됐다. 개발사업지와 골프장 부지를 매각, 대한화재 등 계열사 매각 등으로 지난해부터 총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규로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확보된 매각대금은 대주건설과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2도크 건립에 사용되며, 대주그룹은 지난 연말 일각에서 제기된 유동성 위기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대주그룹 측은 "최근 대주건설의 사업부지 매각과 이번 대한화재 매각 완료로 기점으로 그룹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이 달라졌다"면서 "지난

해 말부터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기존 채무에 대한 만기연장과 신규대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단행된 유종근 회장 영입과 맞물려 그룹의 재기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이제 단기자금 흐름의 문제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며 "투명성 강화와 내실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확대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협 '윤리경영 실천' 다짐

농협중앙회 상무지점(지점장 황보석)은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상무지점의 윤리경영은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깨끗한 농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상무지점(지점장 황보석)은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상무지점의 윤리경영은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깨끗한 농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자금 44조원 중기청, 신용보증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올해 44조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증기관별로 신보가 28조원, 기보는 11조원, 지역신보는 5조3천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특히 신용보증 기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바젤 II 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자금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보증공급의 52.6%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16개 지방자치체에 설립된 지역신보를 통해 지원되는 보증 가운데 70% 이상을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디자인 신기술 사업화 지원자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은 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 디자인 개발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를 통해 오는 3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고유가 '허덕'

환율 약세 등 채산성 악화... 운수·보관업 영업이익률 0.7% 하락 큰 타격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약세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낮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이 지역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의 주력 산업은 석유 의존도가 높고, 수출 위주 기업이 많

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원·달러 환율하락시 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가급등에 따라 항목별로는 운수·보관업종의 영업이익률이 0.7%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석유화학과 석유정제업도 영업이익률이 각각 0.5%,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채산성이 크게 악

화된다. 영업이익률이란 총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원가, 일반 관리비, 판매비를 뺀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특히 전남은 주력 산업인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등의 석유류 의존도가 각각 54.2%, 17.1%에 달한다는 점에

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 이들 업종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8%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지역 전체의 생산·고용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 소비 둔화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기업들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가 급등과 수출경쟁력 약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우려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벤츠에 금호타이어 달고 달린다

타이어 1만개 공급키로

금호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 '비아노 엑스-클루시브'(Viano X-Clusive)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 1만개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승차감을 높이고 소음을 최소화한 UHP(초고성능) 타이어로 고속 주행성능이 뛰어나고 접지면의 좌우측 형상이 각기 다르게 디자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015년 글로벌 빅5의 비전을 토대로 해외 신차용 타이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벤츠 A-클래스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급 모델에 공급 확대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IMPERIAL
입패리얼 1주년
50% 추가 30~20%
TEL 061-681-6811

E-Supporter 어학원
https://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려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연수비용

| 기간 | 4인실 | 1인실 |
|-----|-------|-------|
| 1개월 | 1,111 | 950 |
| 1개월 | 2,111 | 2,150 |
| 1개월 | 2,995 | 2,650 |
| 1개월 | 3,880 | 3,550 |
| 3개월 | 8,880 | 8,250 |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신청은 30분만 연수비용 따먹기 함!!

비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료와 별도 고려해 보실)
- 비자 신청 및 입국 절차, - 이민비 공영 발급,
- 항공료에 따라 합리적인 편익 제공, - 각 레벨에 따른 숙제를 제공.

TEL 0621 264-0882, 010-2255-0459